

“세계 최고 기술력 통해 ‘K-배터리’ 시장 선도”

동진기업(주)

‘원통형 이차전지 조립설비’ 생산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협력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100% 차지 ‘슈퍼커패시터’ 개발 경쟁력 강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선 청소기, 드론, 아이들 장난감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동진은 이제 차세대 슈퍼커패시터를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동진기업(주)이 뛰어난 기술력과 미래 먹거리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9년 광주 하남산단에 터를 잡았던 동진기업은 2014년부터 배터리 관련 전문 연구원을 고용하고 기술개발에 나선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2021년 말 현재 빛그린 산단 내 1500여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21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위치한 동진기업에서 양오열 동진기업 대표가 미래 먹거리인 슈퍼커패시터의 상용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충전식 배터리인 원통형 이차전지 조립설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동진기업은 경쟁사 대비 99.5% 수준의 양품률을 자랑한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파나

소닉 등 대기업의 배터리 생산 설비 기술이 앞서있었지만, 분당 120~150개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수준에서 동진기업이 분당 350개 생산이 가능한 설비로 제품력을 끌어올리면서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원통형 이차전지 외주면 균일 가압장치’ 특허 등 관련 기술도 10개 이상 개발해왔다.

양오열 동진기업 대표이사는 “배터리 생산 설비 기술이 아직 결음마 수준인 유럽에서는 동진 장비 구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재 독일 공장에도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있다”며 “1년에 5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등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동진기업은 전기차 수요 증가로 확장된 이차전지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받았다. 지난 2018년 당시 LG화학, 현 LG에너지솔루션의 협력사로 등록된 것에 이어 지난 2021년 삼성SDI에도 협력사로 등록하며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배터리 생산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

전기차로 잘 알려진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도 모두 원통형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 배터리를 LG에서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동진기업이 LG에 배터리 생산 설비를 모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양 대표는 “기술력 확보에 집중한 결과 대기업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들의 하청을 받아 일을 하던 기업에서 정식 협력업체로까지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2021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탑재량 1위를 차지한 만큼 배터리 생산 설비 규모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 협력업체는 50여곳으로, 지난 2020년에 이미 3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회사 규모와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0년 125억5000만원에서 2021년에는 5배가량인 513억24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50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수출액은 2020년 528만6000불(약 68억5000만원), 2021년 3333만4000불(431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오는 2024년까지 수주 물량이 확보된 동진기업은 현 공장부지 맞은편에 제2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동시에 3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생산성 강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주력하고 있는 원형 배터리 외에도 각종 배터리나 파우치 배터리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며 반도체나 산업용에 많이 쓰이는 진공펌프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진공펌프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를 위해 현재 7500평 규모 부지에 계획 중인 3공장의 절반가량을 진공펌프 생산 설비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대응을 위한 차세대 고효율, 고용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인정받고 있는 ‘슈퍼커패시터’의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양 대표는 “슈퍼커패시터는 일반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작지만 순간적인 고출력을 낼 수 있어 이차전지의 성능을 보완하고 시동과 급가속 등 순간적인 고출력을 대체해 배터리를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자동차에 직접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실용화 단계에 한 발자국 더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최고는 물론 세계에서 K-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동진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기계설비건설협 광주·전남회장에 전상철 대표

“역동적인 협회 위해 소통할 것”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제12대 회장으로 전상철 세진건설(주) 대표이사(사진)가 추대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21일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에서 본회 조인호 회장 및 내·외빈과 사·도회 대표회원, 업계 유공자와 포상자 및 장학생들 등 100여명을 초청해 2023회계연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사·도회 사업보고와 함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사·도회장 선출의 건 등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이날 12대 회장으로 추대된 전상철 회장은 “그간 전임 회장님과 11대 집행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사·도회 12대 집행부와 회원사의 수장으로써 기계설비법 안착을 위한 적극 홍보 및 우리 업계의



권익신장과 미래를 내다보는 역동적인 협회 만들기 위해 향후 회원사와 더욱 소통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봉호 전임 회장은 “지난 6년 사·도회장 임기동안 경기침체와 함께 불가피하게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회원사분들께서 전국 팔도를 누비며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기성실적 증가 및 우리 사·도회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아울러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안착될 수 있게 차기 집행부에도 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도회는 업계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사 대표 및 장기근속 임직원, 관내 기계계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역 내 대학교 기계설비학과 학생과 회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권범 기자

공공요금 상승 여파 지역 소비심리 ‘악화’

한국은행 2월 소비자동향

공공요금 급등 등 물가 상승 영향으로 이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 중 600가구(응답 536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소비자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5.9로 전월대비 0.5p 하락했다.

CCSI(Composite Consumer Sen-

timent Index)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치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102.3을 기록한 이후 9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이달 현재생활형편CSI(81)는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전망CSI(79)는 전월 대비 2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93)는 전월과 동일하고 소비지출전망CSI(109)는 전월 대비 1p 상승했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지역 타이어 우수인재 양성한다

서영대학교와 고용연계 산학협력 8월께 광주·곡성공장서 현장실습

금호타이어가 광주 서영대학교와 손잡고 타이어 산업 전문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21일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에서 서영대학교와 타이어 산업 전문 우수인재 양성 및 맞춤형 인력 취업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표준 현장실습 교육 등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산학 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5월부터 서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취업처를 통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교육 대상 모집 과정을 거친 후 8월께 광주·곡성공장서 2023년 2학기 현장실습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철 서영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광주·전남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교육·취업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산학협력이 지역 인재를 지역



2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서영대학교와 금호타이어가 지역 타이어 전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본부장(앞줄 왼쪽)과 이승철 서영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호타이어 제공

대학에서 교육받고 지역 우수기업으로 취업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본부장은 “이번 산학협력을 계기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금호타이어는 지속적으로 타이어 전문 인력 육성 및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전문 인력 확보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조선이공대학교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등 3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우수 딥테크 기업 대상 3년간 최대 6억 사업화 등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시스템반도체, 바

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10개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진행되는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초격차 분야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선정 규모는 150개사이며, 74개사는 일반 공모, 76개사는 민간과 관계부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6억원 이내

의 창업 사업화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최대 5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사업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각 분야별로 지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프로젝트에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한 최고의 혁신 스타트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